

# “한 세상 눈 뜨는 공부에만 매진하라”

## 경봉 스님 학술적 조명 최초 시도... 문손 정도 스님 東大 박사학위 논문 청구

경봉 스님(1892~1982)은 만해·효봉·구하 스님 등과 교류했던 인물로, 영축총림 통도사의 선종을 크게 떨친 선지식이다. 경허·용성·만해·성철 스님 등 여러 선사에 대해서는 불교학계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나, 경봉 스님은 학술적인 조명이 시도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경봉 스님의 문손인 정도 스님이 동국대 박사학위 청구 논문 '경봉 선사 연구'에서 스님에 대한 학술적 조명을 최초로 시도해 눈길을 끈다.

정도 스님은 경봉 스님의 저서인 <법해> <사바세계를 무대로 멋있게 살아라> <삼소굴 일지> 등을 비롯해 <경봉 스님 말씀> 등 후학이 편찬한 스님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정도 스님은 "경봉 스님은 근현대를 대표하는 고승으로 간화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통도사를 중심으로 가람수호와 교화에 남다른 업적을 남긴 인물"이라고 말했다.

정도 스님은 "경봉 스님에게 선과 교는 둘이 아니었다. <화엄경>이 설한 세계가 선의 세계와 같음을 누차 강조했을 만큼 스님에게 선과 교가 가리키는 세계는 하나였다"며 경봉 스님의 선사상을 선교일체와 생활·간화선종으로 설명했다.

만일삼선결과와 화엄산림결과를 주도하며 선종을 진작시켰던 경봉

스님은 1700 공안 외에 자신만의 화두를 대중에게 제시하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경봉 스님은 자신만의 화두를 통해 대중과 법답을 나누고 법가량 하면서 마조·입체 등의 조사 선종을 활발

발(活潑)하게 드날렸다. 법어집에서 "경봉 스님이 법좌에 올라 주장자로 법상을 세 번 치고 이르시기를, 주장자 머리에 눈이 있는데 밝기가 태양 같고 손금은 불에 넣어봐야 알 수 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길에서 도를 통달한 사람을 만나면 말이 필요없다고 했으니, 대중은 무엇으로 이 도인을 대하겠는가?"라는 물음이 그 예이다.

정도 스님은 "경봉 스님의 심적 경지는 법어집 단락마다 계승으로 들어가 있다"며 "특히 스님만의 화두는 경봉 스님이 간화선을 대중화하고 현대화한 공로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경봉 스님의 선교결 수는 (성철 스님에게 내교외선內敎



영축총림 통도사의 선종을 펼친 경봉 스님(오른쪽)과 문손 정도 스님(위).

外禪이라 비탄 받은) 보조 국사의 선교일체와는 다르게 선과 교가 하나인 차원"이라며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양노염불만일회'와 지금까지 통도사에 이어지는 '화엄산림결사' 등 결사는 개인적인 수행에 그치지 않거나 대중과 더불어 수행하고 실천하는 불교를 이루고자 하는 경봉 스님의 원력이 잘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도 스님은 경봉 스님의 삶을 재가시기(16세), 출가구도기(36세), 전법도생기(62세), 회향기(91세)로 구분했다.

스님은 "경봉 스님의 삶과 사상 속에는 근현대 한국불교의 융화로 와도 같이 모든 불교계의 고민과 대안이 담겨져 있었다"면서 "경봉 스

님이 주석하던 삼소굴은 근대 선지식들과 출·재가 수행자들이 북아 하나가 된 윙광루 같은 곳이었다. 이는 범성(凡聖)과 출·재가, 선교가 들이 아닌 차원에서 모두 아우를 수 있었던 경봉 스님의 회통적 안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경봉 스님은 정화운동에도 참여했다. 정도 스님은 "경봉 스님은 통도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선리참구원과 선학원 등을 중심으로 일제의 불교정책에 맞서 간화선의 선종을 진작시키고 해방 이후 측면에

### 경봉 스님은

양상에 장이 설 때면 커다란 걸개와 불화를 들고 나가 장터 한가운데서 법문했던 '입선수수'를 몸소 실천한 선지식이었다. '사바세계를 무대로 연구 한번 멋지게 해보라'고 호탕하게 외쳤던 스님의 장터 법문은 지나가던 사람과 물론 팔던 상인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듣지 않고는 못 배길 정도로 재미난 법문이였다.

경봉 스님은 24세에 모친상을 당한 뒤 인생무상을 느껴 양산 통도사로 출가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합천 해인사, 김천 직지사 등 제방의 선방을 돌며 수행정진을 거듭했다. 경봉 스님은 "통도사로 돌아오라"는 은사 성해 스님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을

정화를 후원했다"고 말했다.

정도 스님은 "한 세상 안 나온 셈치고 바보가 돼 오로지 눈 뜨는 공부에만 매진하라"며 남자들을 경책하던 경봉 스님이었다. 최근 논문 '해석학적 문제를 중심으로 본 원효의 회통과 화쟁'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스님은 "오늘날 한국 불교가 부산·영남을 중심으로 크게 번성하는 것은 경봉 스님의 선종과 교화의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 “원효의 화쟁은 다원주의”

## 박재현 교수 '불교학연구'서 주장

지금까지 통일주의 혹은 통일론으로 알려졌던 원효의 회통·화쟁 사상이 통일주의보다 다원주의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박재현 서울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간행된 <불교학연구>(불교학연구회 제24호에 기고)한 논문 '해석학적 문제를 중심으로 본 원효의 회통과 화쟁'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원효의 사상과 핵심을 이루는 화쟁과 회통의 논리는 상이한 불교이론이나 종파 간 갈등을 전제로 통일·종합·화해의 메시지로 일체화됐다. 박 교수는 이러한 견해를 고려시대 이전 국사와 근대 최남선 등의 원효에 대한 시각과 평가의 연장선에 있다고 전제했다.

박재현 교수는 "원효의 회통·화쟁 사상을 통섭으로 이해한 것은 오해 내지 선입견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원효는 서로 모순되거나 정합되지 않는 불교의 다양한 이론(주장)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무리 없이 소통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기신론>은 법의 실체성을 해체해 깨달음의 문제를 존재론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인식론적 차원의 문제로 전환했다. 이 과정을 <기신론>은 '섭(攝)'이라 표현했지만 원효는 '섭(攝)'이라 표현하면서 '통섭'이라는 말로 바꾸어 의미를 보강했다.

조동섭 기자

박재현 교수는 "그냥 '섭'이라고 하면 모야들인다는 의미에만 치중하게 돼 통섭(統攝, Consilience)이라는 의미만을 갖게 된다. 원효는 '섭'에 '통(通)'이라는 한자어를 추가해 상이한 것들을 서로 '연결'시킨다는 의미를 보강해 통섭(統攝)으로 오해되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통(通)은 곧 소통"이라며 "소통이 전제돼야만 '섭'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이 원효의 통섭"이라며 "원효의 화쟁은 종교 집단 간의 갈등상황이나 종관·유식 등 특정 이론체계의 상호모순 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실체론적 사고가 서로 맞부딪히는 포괄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재현 교수는 "화쟁과 회통의 논리를 통해 원효 사상을 규정하면 무종파주의·종합주의·초월주의보다는 반실체론이나 다원주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한편, <불교학연구> 제24호에는 박재현 동국대 교수의 '대승불교사상과 사회참여'를 비롯해 김성철 동국대 교수의 '유가행과 수행도에서 이타행의 문제', 우제선 동국대 교수의 '논쟁의 관점에서 본 인도 후기 유가행파의 중지', 박형신 고려대 박사의 '풍경소리를 통해 본 불교문화운동' 등 15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031)985-1627

# '불교사상과 문화' 창간호 나와

##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 "연구 성과 묶을 것"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원장 미산)은 최근 <불교사상과 문화> 제1호를 발간했다.

창간호에는 '붓다른: 우주적 사실과 마음의 사고방식으로서의 붓다'(김형호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화엄경>에 나타난 불타관'(중앙승가대 본가 스님), '밀교적 불타관의 형성과 전개'(허일범 진각대 교수) 등 지난해 연구원이 불타관을 주제로 개최했던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이 수록됐다.

불타관과 관련한 '불타관의 발달'을 통해서 본 불교신앙(노권용 원광대 교수), '<법화경>의 불타관'(중앙승가대 성우 스님)을 비롯해

'서산대사의 승군활동과 조선 후기 추념사업'(황인규 동국대 교수) 등 투고논문도 게재됐다.

특히, 미국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센터 도널드 K. 스웨퍼 소장의 강연문 '21세기의 도전들에 대한 불교적 대응방안'이 실려 있다.

미산 스님은 창간사에서 "중앙승가대 부속 연구소들의 연구 성과를 하나로 묶어내고 학제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불교사상과 문화>를 발간하게 됐다"며 "중앙승가대 학문 발전의 이정표가 되고 불교사상을 중심으로 인접학문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천은사 정보문화재 집대성

## 국립중앙박물관 '천은사의 불교미술' 발간

지리산 천은사, 연곡사의 연혁과 불교문화·불교조각·불교공예 등 불교문화재 일체를 조사한 보고서가 출간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지리산 일대 불교문화재의 체계적인 자료수집의 일환으로 2005·2008년에 천은사와 연곡사의 불교문화재를 조사하고, 그 결과물로 불교미술연구 조사보고 제1집 <천은사의 불교미술(부록: 연곡사의 불교미술)>을 발간했다"고 2월 4일 발표했다.

'불교미술연구 조사보고'는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가 전국 사찰을 실사해 진행 중인 사찰종합조사 결과를 수록한 <미술사학지>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그동안 1993년에 제1집(총국사 편) 발간에 이어 1997년 제2집(선암사 편), 2000년 제3집(선운사·내소사·개암사 편), 2007년 4집(은혜사·동화사 편)까지 <미술사학지> 4권을 발간한 바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권강미 학예사는 "앞으로 사찰소재 문화재

를 비롯한 불교미술 관련 전시와 연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주제로 그 폭을 넓히고,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병행해 조사결과와 객관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은사는 828년(통덕왕 3) 덕은 조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감로사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내용 화상의 원불로 알려진 고려시대 금동불감보물 제1546호와 극락보전의 아미타불회도(보물 제924호), 괘불(보물 제1340호) 등을 비롯해 장르별 주요작품을 소개했다.

부록에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걸출한 석조미술품이 남아있는 연곡사의 불교미술을 소개했다.

조동섭 기자

# 문화재청 '고서·고문서 조사편람' 발간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해인사 대장경판 등 기록유산 조사에 관한 최초의 종합안내서인 <고서·고문서 조사편람>을 발간했다.

한국의 기록유산은 국가 지정(국보·보물) 동산문화재의 40여 퍼센트를 차지한다. 해인사 대장경판을 비롯해 <직지심체요절> <증의보감> 등 기록유산 7건은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돼 있으나 지금까지 고서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와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

편람은 153페이지에 걸쳐 고서·고문서 조사와 연대표, 관련 법령에 관한 자료 등을 담아, 각 기관의 고서·고문서 조사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기록유산의 보존·관리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기획·제작됐다. 문화재청은 편람을 전국 관련 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도 전문을 올려놓아 누구나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 서울불교문화대학

## Seoul Buddhist Culture College

#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 승가학과(2년과정) 주간반/인터넷반

스님들께 수행의 바른 일정 속에서 불교 교육의 원을 실천하여, 체계적인 불교사상과 의식을 결합할 수 있는 교육의 장에서 4기 승가학과 학인을 모집합니다. 강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대신할 수 있는 강의와 교재 최우수 교수진으로, 스님이 라면 반드시 익혀야 할 과목들을 선정하였고 2010년 원전강독과 월선 보강된 불교의식 교육을 선보일 본 대학의 입학에 스님들께 추천합니다.

### ■ 교육과정 소개 ■

구분	1학기	2학기
1학년	법화경강의, 근본불교사상, 불교의식, 불교경전개요, 초발심자경문	법화경강의, 인도불교사, 불교의식, 대승기신론
2학년	법화경강의, 중국불교사, 불교의식, 금강경강의, 유식·중관학	법화경강의, 천태소지관(원전강독), 화엄사상, 불교의식
특강	포교방법론, 비교종교학, 대승기신론, 불교사회복지론, 불교상담론	

\*졸업자격 : 50% 이상 출석한 분만 졸업가능 (인터넷반은 인터넷으로 출석체크)

### ▶ 강의시간표 (1학년 1학기) - 주간반 기준

구분	시 간	월 화 수	목	금
				1,3,5주 2,4주
1교시	오후 2시~3시 20분		법화경 입문	불교경전개요/초발심자경문
2교시	오후 3시30분~5시		불교의식	근본불교

### ■ 신입생 모집 : 총 60명 ■

구분	주간반 30명	인터넷반 30명
수업료	53만원(한 학기 분)	55만원(한 학기 분)
	입학금 10만원(입학시 1번만 납입)	

\*주간반 개근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 \*인터넷반은 인터넷으로만 수강 가능합니다.

- ▶ 응시자격 : 불교 성직자 교육을 원하시는 모든 승려, 법사, 행자(단, 은사 추천 시)
- ▶ 특 전 : 1) 2학년 과정 이수 후 일본 유수 불교대학 입학 추천
- 2)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추천

### 불교학과(6개월과정) 주간반/인터넷반

일반불자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불교' 라는 교육이념 아래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기 쉬운 일반인들이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5기 졸업생 300여명을 배출하였습니다. 2010년 상반기 불교를 바르게 알고 알리는 불자들을 양성하는 본 대학에 6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내 마땅히 중생의 고통을 편안케 하리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전달하도록 일깨워 줄 소중한 인연도량에 입학에 추천합니다.

### ■ 교육과정 소개 ■

구분	교과목 소개 - 6개월 과정	강의 소개
근본불교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학 교수님으로부터 불교를 학문적, 철학적, 논리로 보면 초기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까지 전 과정을 배우는 강좌	대만민족 최고의 불교학 교수님으로부터 불교를 학문적, 철학적, 논리로 보면 초기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까지 전 과정을 배우는 강좌
불교신행강좌	이론적으로 배운 불교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보현보살에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입각하여 배우는 강좌	이론적으로 배운 불교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보현보살에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입각하여 배우는 강좌
불교문화와사회	불교가 우주를 포섭하고 있음을 기초 교리에서 공부했다면 사회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자, 영어, 포교 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강좌	불교가 우주를 포섭하고 있음을 기초 교리에서 공부했다면 사회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자, 영어, 포교 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강좌

### ▶ 강의시간표 - 주간반 기준

구분	시 간	월 화 수	목	금
				1,3,5주 2,4주
1교시	오후 2시~3시20분		불교신행강좌/불교문화와 사회	
2교시	오후 3시20분~5시			근본불교

### ■ 신입생 모집 : 총 120명 ■

구분	주간반 60명	인터넷반 60명
수업료	18만원	20만원

\*인터넷반은 인터넷으로만 수강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바른 마음을 내신 모든 분들

### ■ 교수진 소개 ■

교과목	교수	소 개
대승기신론	이명태 교수	동국대학교 대학원, 일본 고마자와대학 박사 학위,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불교학회 이사장 역임
법화경 강의	박종 교수	서울대학교 졸업, 동국대학 사범대학 부교과사범,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역임, 현 동산불교대학 교수
근본불교, 금강경	최봉수 교수	동국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불교학 석·박사 수료, 인터넷 불교대학 지도교수
불교학개론	신규택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중국학 석사, 동경대학교 대학원 인도·중국철학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
불교의식 강의	혜담 스님	1982년 인간문화재 정지평 스님 법상과 법배·장엄부문 문화재 이수자
초발심자경문	윤산 스님	전 강원 강사, 원전강독 강의
유식·중관학	양승규 교수	동국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불교학 석·박사 수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중앙승가대학 강의, 티벳불교 전공
경전개설	이동형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금융공학 석·박사 학위, 신라대(信樂苑)에서 매주 법화경 강의
불교신행강좌	여여 스님	불교학과 불교신행, 불교문화와 사회 강의
특 강	홍과학장님을 비롯한 교계 최상의 선지식, 교수진을 모신 강의, 경장, 율장, 논장 및 사회 전반에 대하여 강의 주제에 맞는 선지식과 교수진 초청 예정	

### ■ 접수 안내 ■

- ▶ 접수기간 : 2월 28일까지
-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사진(반명함판) 2매
- ▶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홈페이지 공고)
- ▶ 입학일 : 입학일시 2010년 3월 5일 금요일 오후 1시
- ▶ 원서 교부 접수 및 문의처 :
  - 1) 교 학 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78-3번지 (우)110-550
  - 2) 연 락 처 : 관음종 총림 서울불교문화대학 교학국 Tel 02)763-3001(9909) Fax 02)763-5851
  - 3) 홈페이지 : http://www.seoulbcc.kr (입학원서 다운가능)
  - 4) E-mail : yeodiamond@naver.com